

[Press Release] 총 nn쪽

《파라-자기》



- 2026년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4주 간 에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조이솅, Z.T. 응우옌, 다안 쿠자인 단체전
- 드로잉, 조각, 회화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 총 19점의 작업이 에어라운지 1층과 2층 공간에 나누어 전시
- 《파라-자기》는 몽테뉴의 『에세』와 마르탱 게르 사건을 통해 진실과 허위를 가르는 경계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전시는 ‘para-’와 ‘자기’의 개념을 통해 모방이 원본처럼 기능하고, 자아가 단일하지 않은 상태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조건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경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경계를 인식한 채 반복적으로 넘나들고 있음을 드러낸다.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파라-자기》

참여작가: 조이솅, Z.T. 응우옌, 다안 쿠자인

일 정: 2026년 1월 17일(토) - 2월 21일(토)

장 소: 에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관시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이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 02-395-8135)

○전시 내용

에이라운지는 2026년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조이솅, Z.T. 응우옌, 다안쿠자인의 그룹전 《파라-자기》를 선보인다. 《파라-자기》는 미셸 드 몽테뉴가 『에세』에서 말한 진실과 허위의 유사성, 그리고 인간 인식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마르탱 게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판단의 실패라기보다, 진실과 허위를 가르는 경계 자체가 언제나 불안정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경계의 불안정성을 ‘para-’라는 접두사를 통해 사유한다. ‘파라-’는 함께, 나란히 존재하면서도 불복종하고 위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어떤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그 범주와 거의 동일한 힘과 효과를 수행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외부에 있으나 내부처럼 작동하고, 모방이지만 원본처럼 기능하는 상태이다. 한편 한국어의 ‘자기’는 나 자신이자 타인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결코 단일하고 고정된 자아로만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자기’는 언제나 관계와 층위 속에서 구성되며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파라-자기》는 원본이 아니지만 원본처럼 작동하는 상태, 진실과 허위가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상태가 동시에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전시를 통해 경계가 사라졌다고 선언하기보다, 경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계를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넘나들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 참여 작가 주요 약력

조이습 (b.1994)

조이습 (b. 1994)은 욕망, 신체, 감정의 경계를 회화와, 조각, 설치를 통해 탐구한다. 조이습은 신체를 주요한 조형적 단서로 삼는데, 그의 작업에서 신체는 하나의 완결되고 완전한 형상이 아니라 흩어지고 연결되며 끊임없이 재배열된다.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 식물, 레이스, 비즈, 크리스탈, 실리콘 튜브, 샤워호스, 일기장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재료들은 엮이거나 뒤엎쳐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때로는 공중에 매달린 형태로 제시된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주관과 객관 사이의 모순과 불확실성의 세계를 사유하며, 그가 사랑한 사람과 사물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의 흔적을 되짚고 성찰한다.

조이습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수료하였다. 캡션서울, 서울(2025); 실린더, 서울(2023); 김종영미술관, 서울(2022)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참여한 단체전으로는 «다이얼로그: 수신 미확인», 휘경재, 서울(2025); «Rooms of Covergence», 휘슬 X 샤워, 서울(2025); «슬픈 캡션: 모든 건 다 떼내려갔고, 나는 ‘슬픈’ 뒤에 어떤 단어도 쓸 수 없지만...», SeMA 벙커, 서울(2024); «공중정원»,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서울(2023); «Waiting Room», 수치, 서울(2022); «Bony», 뮤지엄헤드, 서울(2021) 등이 있다. 2022 년 김종영미술관 창작지원작가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두산아트랩, 두산갤러리(2023); 성북 N 작가, 성북예술창작터(2023); 알마낙: 50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인 코리아, 아태팩츠(2023) 등에 수상, 선정되었다.

Z.T. 응우옌 (b.1997)

Z.T. 응우옌 (Z.T. Nguyễn, b. 1997)은 주로 드로잉과 설치를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다. 신체와 밤의 공간, 청바지, 주머니칼, 신화 등의 소재를 통해 사유, 욕망, 친밀함, 디아스포라 등의 경험을 시각화한다. 그는 접거나 이동이 쉬운 종이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 이주 경험의 불안정함과 유동성을 표현하며, 접히고 구겨진 종이 위의 붉은 드로잉과 설치는 사적인 친밀함과 공적 권력 구조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는 동시에 퀴어적 정체성과 문화적 소속감의 양가성을 드러낸다. 강제 이주를 포함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 서사와 사회적 역사, 욕망과 권력의 관계를 섬세하게 교차시킨다.

Z.T. 응우옌은 브라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ISD)에서 역사, 철학, 사회과학에 대한 집중; 텍스타일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전공하였고, 이후 예일대학교에서 회화&판화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Island, 뉴욕(2025)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Surface Tention; or, Four Theses on the Nature of Desire: Part II – TENSION», PTT Space, 타이베이(2025); «Power Line: Yale School of Art», 페로탕, 뉴욕(2025); «Architectures of Intimacy», 뉴욕 예술 레지던스&스튜디오(NARS) 재단, 브루클린(2025); «Cảm nang sử dụng: Cuộc đời», 빈콤 현대 예술 센터 (VCCA), 하노이(2024); «(Im)material Ruins»,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인 아메리카 (AAA-A), 브루클린(2023); «Speeding Up, Slowing Down», 쿤스트라움 LLC, 브루클린(2021); «Subtle Speaks», 텍스타일 아트 센터, 브루클린(2020)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9 년 RISD 회화과의 베키 웨스콧 메모리얼 페인팅 어워드를, 2021년에는 뉴욕 예술 재단에서 시티 아티스트 코프 그랜트(2021) 등을 수상하였다. 2019 년에서 2020년에는 텍스타일 아트

센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22년에는 브루클린의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인 아메리카의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였다.

다안 쿠자인 (b.1994)

다안 쿠자인 (Daan Couzijn, b. 1994)은 조각, 회화,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개념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진품성과 차용, 물리적 신체와 디지털 신체, 소유와 상실 사이의 경계를 탐구한다. 그는 진품성과 독창성을 창작자 개인의 내면에서 기원하는 속성으로 간주하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문화적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시각 문화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시각적 관습 아래 이미지가 어떻게 생산, 재생산되며 해석되는지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사회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언제 어떤 것이 의미를 잃는지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이를 작업으로 풀어낸다.

다안 쿠자인은 암스테르담과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로테르담 음악원에서 성악을, 마스트리히트 예술대학에서 퍼포먼스 아트를 전공하였고, 이후 암스테르담의 게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에서 순수미술 및 디자인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아트 브뤼셀에서 플러스원 프로젝트 갤러리와 함께한 솔로 프레젠테이션(브뤼셀, 2025)을 비롯해, «From Raster to Vector», *Center for Contemporary Art & Ecology*, 델프트 (2024); «Look At Me #3». Via Plezzo 16, 밀라노 (2024); «The Overstory», Modern Animals Gallery, 취리히 (2023); «Prospects by the Mondriaan Fund», 아트 로테르담, 로테르담 (2023); «Synthetic Selves», 레이카비크 국제 영화제, 레이카비크, 난징 예술대학 미술관, 난징 (2018)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2021년에는 몬드리안 펀드로부터 아티스트 스타트 지원금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2021년 네덜란드 벤로의 뮤지엄 판 봄멜 판 담과 202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펀 암스테르담 공항에 영구 소장되었다.

또한 시각예술가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퍼포머로서 파리 루브르 박물관, 베를린 하우스 데어 쿨투렌 데어벨트, 암스테르담 스테델린 미술관 등 여러 기관에서도 공연한 바 있다.

○ 전시 서문

김다혜 에이라운지

“진실과 허위는 얼굴도 비슷하고, 태도나 맛, 거동도 닮아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내 생각에 우리는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느슨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칼에 찔리게 하려고 부러 애를 쓰고 있다. 우리는 허공에 섞여 들기를 좋아하니 우리 자신의 존재가 허공과 닮아 있는 탓이다.”¹

- 미셸 드 몽테뉴

몽테뉴는 『에세』 제3권 11장 「절름발이에 관하여」에서 이 문장을 통해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조야하고 둔탁한지를 지적한다. 그가 해당 장을 작성하는 데 바탕이 된 것은 16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진 마르탱 게르 사건으로, 아르노 뒤 툴이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마르탱 게르를 자처하며 그의 행세를 하고 그의 삶을 대신 살아가려 했던 이야기다.² 마을 공동체가 아르노가 마르탱이라 속은 이 일을 통해 몽테뉴는 진실과 허위를 분별하려는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인간의 인식과 판단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정체성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구성되고 승인되는지, 진실과 허위가 거의 구분되지 않은 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줌에 있다. 문제는 판단의 실패가 아니라, 경계 자체가 언제나 불안정하다는 데 있다.

《파라-자기》 전시는 이러한 불안정한 경계 상태를 ‘para-’라는 접두사를 통해 사유한다. ‘파라-’는 그리스어 전치사에 기원한 접두사로 함께, 옆에, 나란히란 의미와 불복종하고 위반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파라-’는 뒤에 나오는 단어와 범주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주가 갖는 힘과 효과를 거의 동일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외부에 있으나 주변을 맴돌고, 모방이지만 원본처럼 작동하며 타자의 욕망이지만 나 자신의 것처럼 감각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자기’는 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연인을 지칭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점은 마치 우리가 결코 단일하고 완전한 단 하나의 ‘자기’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닮아 있다. ‘자기’는 항상 여러 층위와 관계 속에 있으며 단일한 존재로 완

¹ 미셸 드 몽테뉴, 『에세 3』 [eBook], 최권행 역 (민음사, 2022), 크레마 페블 기준 650.

² 마르탱 게르 사건은 1560년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신분 사칭 재판 사건을 말한다. 아르티가라는 지역에 살던 마르탱 게르(Martin Guerre)라는 농부는 베르트랑드를 아내로 맞고 10년 후 갑자기 집을 떠나 실종된다. 수년이 지난 뒤 자신이 마르탱 게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나타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 마을 일, 은밀한 가족사, 부부 사이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아내를 포함한 가족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진짜 마르탱 게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르탱의 삼촌인 피에르의 의심을 시작으로, 새로 나타난 마르탱의 발크기가 사라진 마르탱의 것보다 작다는 구두쟁이의 의문, 진짜 마르탱이 살아있다는 소문 등은 그가 진짜 마르탱 게르인지를 가리는 법정 재판으로 이어졌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 재판장에 의족을 찬 진짜 마르탱 게르가 등장하면서 돌아온 남자는 아르노 뒤 툴이라는 사기꾼임이 드러났다. 이 일은 당시 유죄 판결을 내린 판관이었던 장 드 코라스가 재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책을 출간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정체성, 기억 등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문학에서 자주 다뤄진다.

전히 고정되지 않는다.

다안 쿠자인 (Daan Couzijn, b. 1994)은 진품과 위조품, 원본의 아우라와 기술적 재현, 작가성의 경계를 교란한다. 경매를 통해 얻은 앤티크 회화에서 분리된 안료와 바니쉬는 새로운 앤티크 가구와 캔버스 위로 옮겨지며, 원본의 아우라는 더 이상 하나의 기원과 작품에 고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 17-18세기 네덜란드 전통 회화에 기반한 풍경 이미지를 대규모 데이터로 추적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위조품 제작자에 의해 그려진 *Thinking of Holland* 시리즈는 작가성과 제작주체를 모호하게 만든다. 그의 작업은 원본이 가지는 아우라가 더 이상 원본에만 귀속되지 않는 상태를 드러낸다. 그의 작품에 진품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가, 이 작품을 다안의 작품이라 볼 수 있는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이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의 작품은 해당 질문에 답을 던지고 해결하려하기보다, 오히려 이 질문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지점을 가리킨다.

Z.T. 응우옌 (Z.T. Nguyễn, b. 1997)은 정지와 변화, 내부와 외부, 가능성과 불가피성 사이에 놓인 경계 위의 긴장 상태를 다룬다. 그의 드로잉 작업은 8.5×11인치 규격의 종이를 주 매체로 삼는데, 이는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표준 레터 사이즈이다. 삶의 이동과 정체, 승인과 보류를 판별하는 망명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에도 사용되며 일상적인 편지, 메모에도 사용된다. 응우옌은 이 종이를 접고, 겹치고,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이는 종이가 담고 있는 제도적 권위와 규정의 힘 안에서, 그 힘이 결코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 그의 작업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별과 모기는 이러한 경계의 불안정성을 시각적으로 응축한다. 무한한 외부를 가리키는 자연적 별과 정치적 기호로 압축된 오각별 사이의 간극은 규정과 상징이 어떻게 생성·번역되는지를 보여주며, 해롭고 배제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는 모기는 동시에 제거될 수 없는 조건으로 남아 있는 타자의 형상을 띤다.

조이솝 (b. 1994)은 ‘파라-자기’의 구조를 정체성 내부로 끌어온다. 욕망의 출처가 불분명해진 주체, 타자의 욕망을 내재화한 주체는 그 분열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유지한다. 그의 ‘자기’는 분열되었지만 하나처럼 작동하며 붕괴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 레이스, 비즈, 샤워호스, 일기장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재료들은 서로 엮이거나 뒤엉켜 하나의 덩어리이자 작품을 이루고 때로는 공중에 매달린 형태로 제시된다. 조이솝은 주관과 객관 사이의 모순과 불확실성의 세계를 사유하며, 그가 사랑한 사람과 사물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의 흔적을 되짚는다. 이때 ‘자기’는 외부로부터 위협받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타자의 흔적이 스며든 상태로 구성된다. 그의 작업은 자기와 타자, 나의 감정과 타인의 욕망이 구분되기보다 겹쳐진 상태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파라-자기》는 서로 상반되는 상태, 원본이 아니지만 원본처럼 작동하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하기보다, 오히려 경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계를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넘나들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 대표 작품



조이솝

죽은 토끼에게 희망을

Hope for a Dead Rabbit

2015, 2025

Acrylic, paper, nails, and thumbtacks on rabbit skin

31.5 × 35 cm



조이솝

DID: Personal Effects #5

2025

Old diaries, my grandmother's pearls, crystal, a glass cosmetics container in a glass frame; thread embroidery on canvas; graphite on a wooden frame; filding wax and imitation gold leaf on discarded frame structures; and mixed media

58 × 59 cm



Z.T. 응우옌

Starlit

2024

Graphite and acrylic on letter-sized sheets of paper

81.28 × 102.87 cm



Z.T. 응우옌

Sweetblooded

2022

Graphite and watercolor on paper

30.48 × 22.86 cm



다안 쿠자인

The burning heart

2025

Pigments of antique oil painting on textile, mounted in 19th century folding screen, Louis XV style, built from walnut

124 × 138.5 cm



다안 쿠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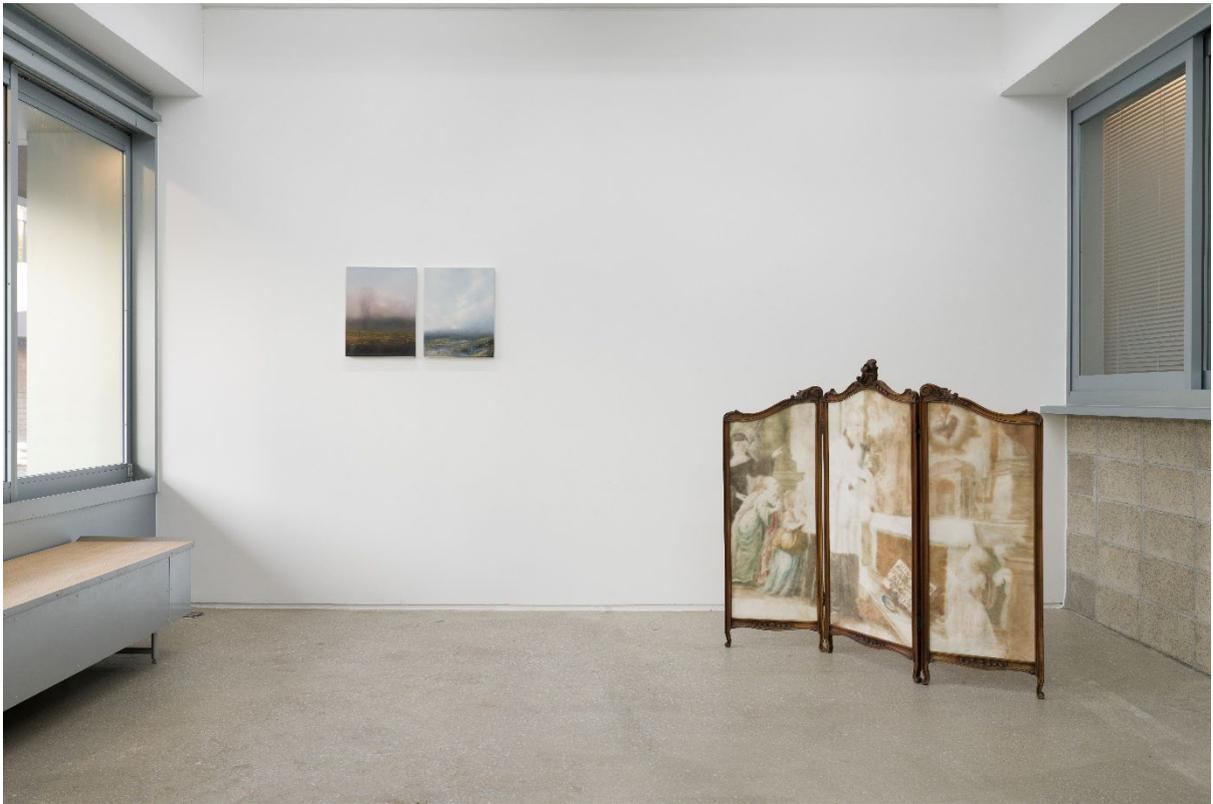
Still life with partridges and a woodcock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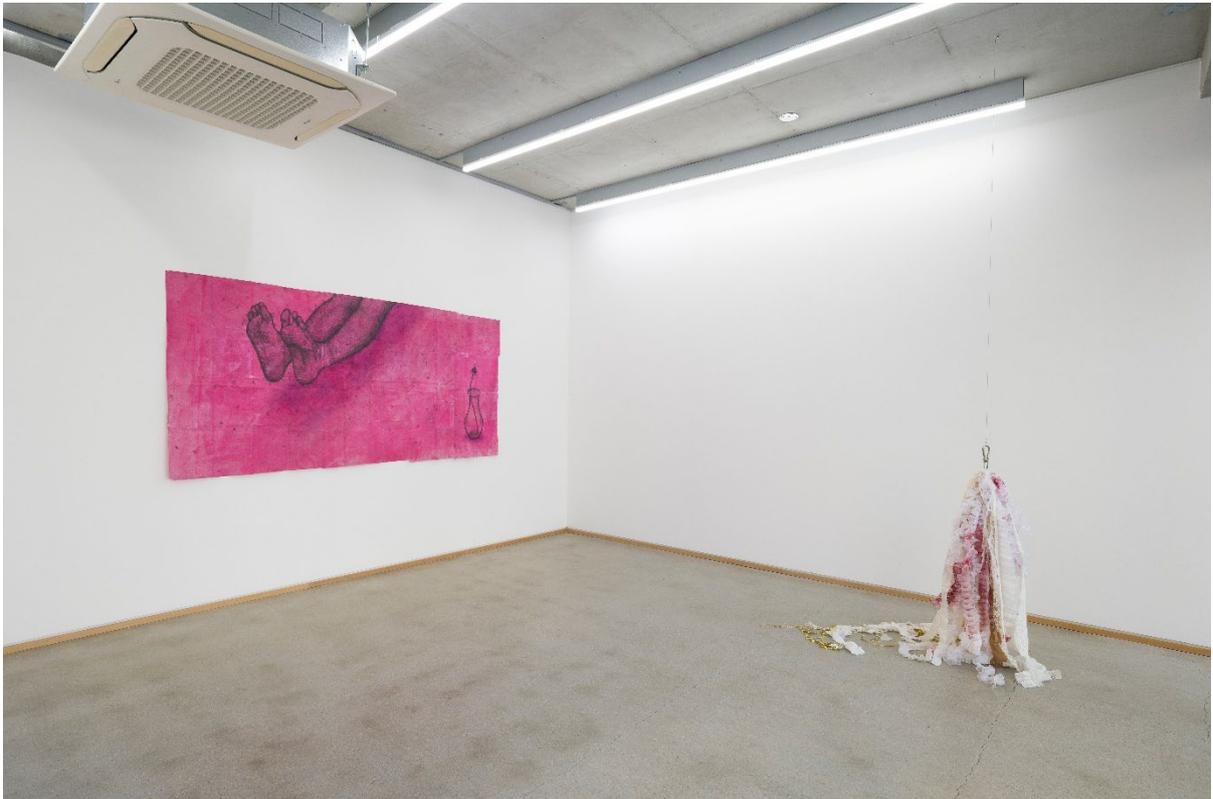
Pigments of antique oil painting on textile

48 × 56.5 cm

○ 전시 전경



A-L



A-L



A-L



A-L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y, Seoul